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서현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부분 내용분석

-제4차, 7차 중·고등학교  
사회, 정치 교과서를 중심으로-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혜림

#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부분 내용분석

-제4차, 7차 중·고등학교  
사회, 정치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 현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혜 림

# 인 준 서

김혜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정당관련 서술내용이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교과서에서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들이 한국 정당 정치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 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사고나 인식의 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정당정치를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거시적인 사회갈등으로 여기게 되어 장차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교과서는 이와 같은 교육의 활동을 제시하여주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학습도구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과서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4차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 I, 제7차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내용을 총 네 개의영역으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하였다. 네 개의영역은 정당의 개념과 기능, 정당의 유형과 제도, 유권자간의 정당, 현대정당의 문제점영역이다.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제7차 교과서에서는 ‘정당’관련 서술내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제4차 교과서는 정당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을 다룬 반면, 제7차 교과서는 1영역부터 4영역까지의 서술이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4차 교과서보다는 제7차 교과서에서 실제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비중이 늘었다. 정당의 개념과 기능영역과 정당의 유형과 제도영역에서는 서술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유권자간의 정당영역과 현대정당의 문제점영역은 제7차 교과서에서만 서술

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시기의 교과서 모두 정당의 유형에 대한 서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제7차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고등학교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내용이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는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보다 심화·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권자간의 정당영역부분이 부실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부분은 중학교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객관적인 현대정당의 문제점영역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보다 심화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정치과목은 반복학습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또한 향후 2~3년 후면 참정권을 갖게 되는 학생들에게 정당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이 나타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정당관련 서술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와 제7차 교과서간의 정당관련 서술내용이 비중의 차이만 발견되고 관점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질적인 차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사회의 변화를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로 양적인 차이가 아닌 질적인 차이로 수준 높은 교과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 정당의 유형과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이론적 지식과 정보가 제

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정당사는 권위주의적 일당우위 내지는 패권적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의 정당정치가 파행적 과정을 반복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교과서가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정당의 유형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당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양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서보다 유권자와 정당 간 관계, 현대정당의 문제점등 정당정치과정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4
1) 연구문제 .....	4
2) 연구방법 .....	5
3. 연구의 제한점 .....	7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8
1. 민주화와 정당의 관계 .....	8
1) 민주주의와 정당의 관계 .....	8
2) 정치교육과 정당 .....	11
2. 선행연구 고찰 .....	11
III. 제4차, 제7차 사회과 교과서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	14
1. 분석대상 .....	14
2. 비교분석의 준거.....	15
3. 정치과목의 특성과 민주주의 정당 .....	18

IV. 정당관련 서술내용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	24
1. 정당관련 내용 변화분석 기준 .....	24
2. 정당관련 내용 변화분석 .....	35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58
V. 결론 및 제언 .....	60
1. 분석결과의 요약 .....	60
2. 시사점 및 제언 .....	63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I> 분석대상 .....	15
<표 II> 분석준거: 정당 내용의 비교 분석틀 .....	17
<표 III> 분석기준: 교과서 내용 분석방법 .....	25
<표 IV> 제4차, 제7차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비중 변화	36
<표 V> 제4차, 제7차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비중 변화 .....	43
<표 VI> 제7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비중 변화 ...	51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이다. 그리고 사회과 교육안의 여러 교과 가운데 특히 정치는 이 같은 사회과 교육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교육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당면정치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양하게 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교육에 있어서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는 정당에 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경쟁을 규정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익들을 통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유권자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와 정부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권력자를 제약하는 등의 민주정치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샤트 슈나이더(shartts chneider)는 “현대의 민주주의는 정당이라는 용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정당은 오늘날 민주정치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중심에 위치하여 결정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켈젠(kelsen)은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정당국가”라고 규정하였다. 그것은 오늘날의 정당이 국가의 정책 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정치권력의 장악과 유지, 권력에 대한 도전과 응전, 권력을 향한 의지와 이로 인한 좌절, 이 모든 것이 정당을 매개로 해

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정부수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정당의 결성이나 정치인의 이합집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심지연, 2004)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정당은 냉전반공의 이데올로기에 기반 하여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대표하지 않다가,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세력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민과 지역주의만을 동원한 결과, 심화된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계층 그리고 다양하게 분화된 사회적, 세대적 갈등과 균열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 정치사회이다. 이렇게 민주정치의 중요요소인 정당에 대한 개념이 민주주의 이전과 이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의 교육 과정은 제4차 교육 과정 기로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22호로 확정되어 1988년 3월 개정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이념이나 교육과정사조 또는 이론상 어느 한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제4차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인간상을 그리면서 전인 교육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교육 실재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정당의 모습과 이를 반영한 정당관련 서술내용이 차이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서술되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대의 민주정치가 정당정치로 특정 지어진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당관련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 개인이 정치생활이나 정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쌓는 것은 주로 학교를 통해서이다. 즉, 정치현실에 대한 이론화의 기틀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치교육은 국

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통합된 교과인 ‘사회’의 한 영역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정치’로 독립되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심화선택과목인 ‘정치’과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와 ‘정치’과목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중학교 3학년 (1) 민주 정치과 시민참여 단원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정치 영역을 학습한 후 3년 만에 접하는 단원이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최종학년인 10학년 ‘고등학교 사회’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현상에 대한 개념과 이론 등에 체계적으로 배우는 본격적이며 최종적인 단원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원은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 체계성을 잃고 있다.(이춘수, 2002:147)

그리고, 2006년 1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 토론회에서 장원순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현재 중학교의 정치교육이 국가제도 등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 중심으로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정치를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거시적인 사회갈등으로 여기기 쉽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2006. 11. 23, 장강명 기자) 이에 따라 고등학교 정치과목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2~3년 후면 참정권을 가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교육이 중학교 3학년 사회과목에서 배우는 내용과 고등학교 정치교과와 차이가 없거나, 실제 사회의 변화와 교과서에서 나타난 정당의 모습과 괴리가 커지게 된다면 학교교육의 효율성과 그 의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과 중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부분에 대한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 이론과 실제 사회현상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필요하

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와 ‘정치’교과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일선 교사들의 교수·학습 계획을 위한 교과서 재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정당에 대한 서술을 민주화 시점인 ‘1987년 6.29 선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제4차와 제7차 사회과 과목인 사회와 정치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간의 서술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정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에 대한 서술내용을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해 정당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민주화 이전과 이후에 따른 정당관련 교과서의 서술내용 비교분석은 민주화를 기점으로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년별로 체계적인 내용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생들이 한국 정당의 모습에 대해 판단할 잣대가 부족해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정당에 대해 제대로 학습 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정당관련 서술내용 비교분석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제4차와 제7차 중·고등학교 사회, 정

치교과서의 정당에 대한 서술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제7차 중·고등학교 사회,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 유형에 따른 수(數)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제4차에서 제7차로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서술 유형 영역별 비중 변화가 있는가? 또한 제4차와 제7차의 정당관련 세부 서술내용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서술의 공통점이 나타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나타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둘째, 제7차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 관련 서술 유형 영역별 비중 변화는 어떠한가? 또한 정당관련 서술 내용상의 차이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서술의 공통점이 나타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나타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 정치교과서의 ‘정당’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내용분석법이란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현된 의사소통 기록물의 내용적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그 동기, 원인 및 결과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리하려는 사회과학의 분석기법으로서, 그 분석의 절차는 누구나 동일 방법을 쓰면 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뜻의 객관적 분석을 전제한다.

덧붙여, 그 결과를 가능하면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량화 하려고

한다. 물론, 서술적 역사 연구나 문학 비평에서도 실은 일종의 내용분석법을 과거부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량화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김경동 외, 1989)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제4차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정당관련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중은 어떠한가?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정당관련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중은 어떠한가?

셋째, 제4차와 제7차의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내용과 비중은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제7차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내용과 비중은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첫째,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당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의 주요 결과에 주목한다.

둘째, 학교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기능과 더불어 민주주의 이전과 이후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정당관련 서술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정당교육영역에 따른 정당관련 서술내용과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제4차와 제7차 전종의 사회·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정당정치관련 문장을 모두 찾아내어 분석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정확한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제1차 교과과정부터 현재까지의 교과서를 모두 분석해야 하지만 이 모든 교과서를 각각 분류하여 연구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민주화 이전의 제4차 교과서와 최근의 교과서인 제7차 교과서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서술 내용과 유형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와 태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제약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기존 문헌을 검토해 보고 이를 유형분류와 내용분석의 준거자료로 활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민주주의와 정당의 관계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이론가들에 의하면, 정당은 선거경쟁을 규정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익들을 통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유권자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와 정부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권력자를 제약하는 등의 민주정치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또한 새로이 성장하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당은 새로운 정권을 공고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남영, 20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샤프슈나이더(Schattschneider)는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의 관점을 떠나서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정당은 현대 정치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정치의 핵심에 위치하여 결정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였고, 라이프홀츠(G. Leibholz)는 “현대의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로 특정 지어진다”라고 하였다. 뉴먼(S. Neumann) 또한 “정당은 현대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국민의 정치생활에 있어서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의 핵심에 위치한 중요한 정치단체임을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6월 민주화 운동을 거쳐 그 이행기에 접어들었다. 정해구(성공회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연구소장), 김세균(서울대교수, 정

치학), 조희연(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정구현 소장(삼성경제연구소), 이행봉(부산대학교 교수)등 많은 학자들이 “한국은 1987년 6월의 전환점을 계기로 급속한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민주화의 첫 과정을 ‘1987년 6.29 선언’으로 정하였다.(조정관, 1998; 이행봉, 2000; 김세균, 2004; 조희연, 2004; 최장집, 2005; 강내희, 2007; 울산일보, 2007; 인천신문, 2007; 중앙일보, 2006; 신동아, 2000)

87년도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87년의 ‘유월항쟁’이라는 민주화대투쟁을 통하여, 한국에서 군부권위주의 정권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직선제를 통해서 등장한 제6공화국 노태우정권은 군부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일정정도 민주화의 성과라는 면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92년 대선을 통해서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문민정권을 탄생시키게 된다. 비록 ‘3당 합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졌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의 높은 지지와 기대에 힘입어 일대 개혁을 단행한다(이영조, 1997) 97년 12월 18일의 대선을 통해서 여·야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의 출범은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밝게 하는 일대 사건이었다.(이행봉, 2000)

그리고 2004년(2004년 4월 조사 완료)과 2005년(2005년 9월 조사 완료) 사이의 전체적 변동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민주발전지수는 총점 1,000점 만점에 2004년 480.24점에서 2005년 507.24점으로 26점(5.62%)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민주화가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양 조사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주 적지만 그래도 2005년 조사에서 보다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민주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민주화 경험에 기반 해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윤상철 외, 2006)

한국의 '정당정치영역'도 또한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여소야대의 정당체제를 형성하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sup>1)</sup> 민주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 한 정당관련 논문에서 정당 그 자체만을 연구한 논문 등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정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정당정치의 과제와 정치발전모색(사회과학연구, 주정연, 2001)에서는 한국정당들이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위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전제해두고, 정당조직내외 민주주의와 한국정당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한 후 정치발전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연속성과 변화(사회과학논문집, 유재일, 2002)에서는 민주화 이전 시기의 한국 정당기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기능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진단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변화와 그 특성을 밝혀보려 하였다.

한국 정당체계의 기원과 변화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서복경, 2002)에서는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당체제와 기원을 1958년 체제로부터 찾고, 전후 정당정치와 선거정치를 1958년 체제가 갖는 특성을 통해 설명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체제와 개혁과제(사회과학연구, 박명호, 2003)에서는 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과 정당체제가 어떤 이유에서 정책정당화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세기의 첫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정책정당화하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조직 개혁에 관한 연구: 원내정당과 대중정당 모

---

1) 권영중(2002),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연구: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1

델을 중심으로(학위논문, 윤범기, 2003)에서는 민주당 특대위의 정당개혁 프로그램이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이 아닌 미국식 원내정당 모델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미국식 원내정당 모델이 가지는 내적인 문제점이 국민 경선 이후 민주당 위기의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과 필리핀의 정당정치 비교연구(학위논문, 박용규, 2006)에서는 한국과 필리핀의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권위주의 체제 붕괴이후 새롭게 형성된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민주화 이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2. 정치교육과 정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이 중요하다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치교과서에서 정당부분에 관한 내용분석을 하고자한다.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이 정치의 핵심으로 중요위치에 있다면 민주화 이전의 정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교과서에는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민주화 시기 이전과 이후의 정당에 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민주정치의 첫 과정을 위의 이론에 근거하여 '1987년 6.29선언'으로 잡아보았다. 따라서 1987년 이전의 교육과정기인 제4차 교육 과정 기를 민주화 시기 이전으로 보고, 가장 최근에 제작된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를 민주화 이후로 보아 이를 비교분석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민주화의 정도는 민주화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발전되었는지 알아보아 제7차 교과서에서 정당에 관한 서술 내용이 실제 사회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사회과 교과서에서 정치영역, 정치교과서를 비교분석 한 연구 등 정당관련

논문과 정치교육관련 논문은 많았으나 정치교육에서의 정당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과의 정치영역 교육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하영란, 1993)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중심으로 사회과의 정치교육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치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해야 할 앞으로의 정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정치현상의 괴리(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연구, 이상식, 1994)에서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성요소 중 현행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을 민주정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정치교육내용 비교 분석(순천대학교 과학과 교육, 조성규, 손병선, 1999)에서는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정치교육내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치교과서의 정치교육내용의 사회 기능적 구성에 요구되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치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 연구(교육연구논총, 이춘수, 2002)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의 현행 교육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나타난 정치 교육의 구성과 체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정치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장형수, 2003)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기의 '정치'교과서와 제7차 교육과정기의 '정치'교과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 영역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앞으로 정치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교과서 정치영역의 내용분석(학위논문, 이수정, 2003)에서는 정치교육의 가장 기본 자료인 사회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정치영역 내용 안에 사회과의 목표가 어떤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분석해보고

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시민사회화: 국회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연구논문, 최선열, 2006)에서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언론보도가 매우 부정적이고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극도로 나빠진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국회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정치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교육에서의 정당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정당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와 정당에 대한 연구에서는 민주화 과정과 정당,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둘째, 청소년과 정치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한 청소년들의 정치인식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셋째, 정치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과서와 정치 교과서에 반영된 정치이론 총체적인 연구,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정치영역에서 사회과의 목표가 제대로 반영되어있는지를 다루었다.

### Ⅲ. 제4차, 제7차 사회과 교과서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민주주의 이전과 이후의 정당관련 서술내용의 변화를 제4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대상과 범위는 아래의 <표 I>과 같다.

연구대상을 교과서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과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사용되는 주된 교재로 교사는 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습지도를 하며, 학생들은 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습내용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그 이념을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도구이고, 한 국가의 공식적 이념뿐 아니라 교육목표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며, 교사의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 그리고 평가의 주된 근거의 하나가 되며, 학생들의 학습활동의 주된 자료로서 학습의 결과를 반성하고 정리하게 해준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 속에 반영된 문화적 가치 체계는 학생들의 신념과 지식 그리고 행동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채기범, 2004).

제4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과 교과는 그 특성상 각 시대의 사회현상이 타 과목에 비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민주화 이전과 이후 사회분위기에 따라 정당관련 교과내용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알아보려 한다. 비교대상으로 민주화 이전 교과서를 제4차 교과서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에서 민주화의 첫 과정인 정치적 자유화가 구정권의 특별선언(1987년 “6.29선언”)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화 이전 교과서인 제4차 교육과

정 기(1980년~1987년)의 교과서와, 민주주의 이후 가장 최근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 기(1999년~ )의 교과서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정당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지적 수준차이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사회과목에서 배우는 정당관련 내용이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준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표 I> 분석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제4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3(상) I. 정치생활 3.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③. 여론과 정당	고등학교 사회 II III. 국가와 정치 3. 정치과정 (2). 정당과 이익단체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3 1.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중앙, 금성, 교학사 황재기 외, 교학사 차경수 외, 동화사, 디딤돌, 지학사, 고려출판 총8종]	고등학교 정치 II. 정치 과정과 참여 3. 정당과 이익집단 [지학사, 법문사, 천재, 대한교과서 총4종]

## 2. 비교분석의 준거

본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권위 있는 정치학자들의 정치학 분류(Ⅱ. 이론적

배경 3. 정치과목의 특성과 민주주의 정당 5). 정치학자들의 정당분류' 참조)를 중심으로 정치교육 내용을 분류하되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정치교육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본 논문의 의도에 맞게 본 연구자가 다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 내용의 비교 분석틀은 크게 <정당정치 개념과 기능>, <정당의 유형과 제도>, <유권자간의 정당>, <현대정당의 문제점>의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당정치 개념과 기능>영역에서는 정당의 정의, 정당의 기능과 관련된 문장을 다루고, <정당의 유형과 제도>영역에서는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을 다루는 정당의 유형과 일당제도, 양당제도, 다당제를 다루는 정당의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문장을 알아볼 것이다. <유권자간의 정당>영역에서는 정당과 시민에 관련한 문장을 분석하고, 마지막영역인 <현대정당의 문제점>부분에서는 탈 정당화 현상, 한국의 정당민주화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 문장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위하여 <표Ⅱ>와 같이 작성하여 내용분석의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II> 정당 내용의 비교 분석틀

정당교육영역		
주요영역	세부영역	내용
1. 정당정치 개념과 기능	1-1. 개념	1-1-1. 정당의 정의
	1-2. 기능	1-2-1. 여론의 형성과 조직
		1-2-2.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1-2-3. 정부와 의회정치
		1-2-4. 정치 충원의 기능
2. 정당의 유 형과 제도	2-1. 유형	2-1-1. 간부정당
		2-1-2. 대중정당
		2-1-3. 포괄정당
	2-2. 제도	2-2-1. 일당제도
		2-2-2. 양당제도
		2-2-3. 다당제
3. 유권자간의 정당	3-1. 정당과 시민	3-1-1. 정보획득을 위한 정당-시민생활속의 정당
		3-1-2. 정치참여의 채널로서의 정당
4. 현대정당의 문제점	4-1. 탈 정당 화 현상	4-1-1. 이익집단의 증가
		4-1-2. 풍요한 사회의 실현에 따라 생활수 준이 향상되어 정치보다는 다른 문제에 더욱 관심을 지니게 되는 일반국민의 의식의 변화 -불신, 무관심의 문제
		4-1-3. 정당조직의 경직화·관료화
	4-2. 한국의 정당 민주화	4-2-1.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 극복, 당내 민주화
		4-2-2. 경쟁적 정당제확립
		4-2-3. 부정부패타파

### 3. 정치과목의 특성과 민주주의 정당

#### 1) 4차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교과목표	학년 목표(3학년)	내용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뚜렷한 자각을 가지게 하며,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고, 나아가 사회 및 국가의 번영과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가지게 한다.	우리나라 정치 제도의 민주적 구조와 운영 모습을 알게 하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요인을 살펴피며, 현대 경제는 개방 체계 속에서 성장하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이해하게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념과 원리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게 하고, 민주 정치의 여러 형태 및 그의 과정과 국제 정치의 현실을 우리나라와 관련시켜 알게 한다.

#### 2) 4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교과목표	학년 목표(사회 I)	내용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제 분야의 지식을 쌓고 민주 국가 국민으로서 바람직한 신념과 자각을 갖게 하여, 자신의 앞날을 개척함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융성과 발전 및 인류 고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견(中堅)국민으로서 자질을 기른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정치의 이념과 발달과정 및 헌법을 비롯한 법의 기초 내용을 이해하게 하여, 건전한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한다.	민주주의 원리를 역사적 맥락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하고,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전개 과정과 국제 관계를 파악하게 하여, 민주 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3) 7차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교과목표	학년 목표(3학년) 및 내용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민주 시민의 역할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와 기능을 현실 정치의 동태적 과정과 관련지어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정치과정에서 선거, 언론과 여론, 이익집단, 정당 등이 지니는 의의와 기능을 이해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선거, 정당 등과 관련된 민주 정치 제도, 민주적 참여 절차 및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는 단원이다. 또,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치 과정에의 다양한 시민 참여의 방법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 4) 7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교과목표	과목(정치)의 성격과 영역별 내용
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정치 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중요성 및 이익집단과 대비한 정당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당제도의 종류와 유형 및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탐색해 보며,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적인 정당을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정치’과목의 목표는 사회과의 목적인 민주 시민성을 심화, 완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현상을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도록 구체적인 생활 경험에서의 사례들을 활용하여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태도를 가진다.	‘정치’과목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2~3년 후면 참정권을 가지는 명실상부한 시민이 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쟁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선정하였다. 민주정치의 중심적 요소인 정당의 특성과 기능, 여러 유형의 정당체계와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민주적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

이를 요약해보면, 제4차 교육과정기에서는 교과목표 및 내용을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제7차 교육과정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자세히 서술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과목표를 먼저 살펴보면,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통해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다음으로 학년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4차 교육과정기는 포괄적인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반면, 제7차 교육과정기는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에서의 정당에 대해 학습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5) 정치학자들의 정당분류

<오키자와 노리오, 『현대 정당론』, (서울: 문원, 1997), pp.차례8-9>

1부. 국내정치와 정당	
① 현대 민주주의와 정당	② 정당시스템 -정당 간 상호작용의 구조
③ 정당과 권력-정부 속의 정당	④ 정당과 의회-의회정치의 원동력

⑤ 정당과 선거-선거과정의 과점자-	⑥ 정당과 시민
<b>2부. 정치시스템으로서의 정당</b>	
⑦ 정당조직론 -정치자원으로서의 조직과 수	⑧ 정당 내 의사결정과정 -정당과 정책
⑨ 정당재정-정당정치와 자금	
<b>3부. 국제정치시스템과 정당</b>	
⑩ 상호의존체제와 정당의 국제적 연대	

<안성호, 『신 정치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2), p.차례17-18>

<b>정당 일반론</b>		
① 정당의 개념	② 정당의 발생과 종류	
③ 정당 이념과 분화	④ 정당의 기능과 역할	
⑤ 정당의 재정	⑥ 정당 조직과 구조	
<b>정당제도</b>		
① 비경쟁적 정당제	② 경쟁적 정당제	
③ 정당제도의 성립요인	④ 정당제도의 비교	
<b>정당정치 갈등</b>		
① 정부와 정당간의 관계	② 여·야 관계	③ 정당정치와 노선갈등
<b>한국의 정당조직의 과제</b>		
①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관계	② 지역정치 활성화와 지구당	③ 저비용 고효율의 지구당 운영
<b>한국의 정당민주화</b>		
①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극복	② 부정부패타파	
③ 당내 줄서기 타파	④ 경쟁적 정당제확립	
⑤ 보수-개혁 경쟁구도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 『정치학-현대정치의 이론과 실

천』,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p.차례16>

정당과 정당성	
① 정당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유형</li> <li>• 정당의 기능</li> <li>• 정당조직</li> </ul>
② 정당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당제도</li> <li>• 양당제도</li> <li>• 다수당제도</li> <li>• 다당제도</li> </ul>
③ 정당의 쇠퇴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2007), p.차례19>

정당	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의 존재이유		
	② 정당의 개념		
	③ 정당의 발생과 분립		
	1. 근대 정당의 발생	2. 정당의 분립	
	④ 정당의 기능		
	1. 여론의 형성과 조직	2. 민중에 대한 정치교육	
	3. 정부의 조직	4. 의회정치의 조직적·능률적 운영	
	5. 지도자의 선택		
	⑤ 정당제도		
	1. 정당제의 새로운 유형화	2. 알몬드의 정당제 유형	
	3. 정당제 성립요인	4. 양대 정당제의 장단점	
	5. 다당제의 장단점		
	⑥ 정당의 조직		
	1. 간부정당의 특징	2. 대중정당의 특징	3. 당내 과두제와 당

		내민주제
	⑦	정당의 자금
	⑧	계급관의 변화와 포괄정당의 출현
	⑨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한계분화
	⑩	탈정당화 현상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중요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본 논문에서 정당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관련 서술시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러 정치학자들의 정당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를 분석할 틀을 만들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각각의 교육과정을 통해 정당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중심내용이 시대별, 학년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분석의 근거에 따른 분석 결과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

#### IV. 정당관련 서술내용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 1. 정당관련 내용 변화분석 기준

### 1) 각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 유형별 비중

먼저, 제4차와 제7차의 중학교 교과서, 제4와 제7차의 고등학교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 유형별 비중을 아래의 표에 맞추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제4차와 제7차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 관련 서술의 유형별 비중도(%)를 산출하여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정당관련 서술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보겠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교육과정기의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비교분석하려고 한다.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제7차의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 관련 서술의 유형별 비중도(%)를 산출하여 동일한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정당관련 서술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보겠다. 제4차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비교분석은 중요시사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문에는 넣지 않았다. 하지만 분석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부록2>에 제시되어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사회, 정치 교과서의 정당관련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 제4차, 제7차 교과서의 각 영역별 세부내용의 자료의 수를 측정하여 아래의 표 형식에 맞추어 비중도<sup>2)</sup>를 알아볼 것이다.

### <표Ⅲ> 교과서 내용 분석방법<sup>3)</sup>

2) 비중도(%) = 각 세부내용의 문장의 수 / 전체 상대관련 문장의 수×100

(단,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3) 이수정(2003),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 정치영역의 내용분석』, 연세대학

정당교육영역			문장		증감 (%)
주요영역	세부영역	내용			해당
1. 정당정치 의 개념과 기능	1-1. 개념	1-1-1. 정당의 정의			
		소계			
	1-2. 기능	1-2-1. 여론의 형성과 조직			
		1-2-2.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1-2-3. 정부와 의회정치			
1-2-4. 정치 충원의 기능					
소계					
2. 정당의 유형과 제 도	2-1. 유형	2-1-1. 간부정당			
		2-2-2. 대중정당			
		2-2-3. 포괄정당			
		소계			
	2-2. 제도	2-2-1. 일당제도			
		2-2-2. 양당제도			
		2-2-3. 다당제			
소계					
3. 유권자 간의 정당 과 시민	3-1. 정당 과 시민	3-1-1. 정보획득을 위한 정당-			
		시민생활속의 정당			
		3-1-2. 정치참여의 채널로서의 정당			
소계					
4. 현대정 당의 문제 점	4-1. 탈 정 당화 현상	4-1-1. 이익집단의 증가			
		4-1-2. 불신, 무관심의 문제			
		4-1-3. 정당조직의 경직화·관료 화			
		소계			
	4-2. 한국 의 정당 민 주화	4-2-1.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 치 극복, 당내민주화			
		4-2-2. 경쟁적 정당제확립			
		4-2-3. 부정부패타파			
소계					

## 2) 각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 내용 분석의 준거

교석사학위논문, p44 에 있는 분석틀을 본 교과서 분석에 맞게 다시 분류한 것이다.

네 가지 영역인 정당정치 개념과 기능, 정당의 유형과 제도, 유권자간의 정당, 현대 정당의 문제점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정의를 기준으로 교과서상에서 어떻게 서술되어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민주화시기의 정당을 기준으로 한 분석 틀이므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에 대한 개념을 분석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틀과 기본개념에 따라 각 영역별로 해당 사례를 알아보았는데, 이는 분석 전 민주화 이전과 이후에 따라 교과서에서 서술내용의 차이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기초 분석임을 밝혀둔다.

### ①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정당법 상의 규정으로는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노이만(S. neumann)은 정당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현대 정치사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은 사회 속에서 여론을 표출, 집약시키고 정치적 엘리트들을 충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엘리트의 충원이란 선거 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정당의 간부라던가 정부기구의 고급요직을 위한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당정치가 발달된 서구에서는 선거 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급인력이 모두 정당에서 충원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정당은 정치적 참여를 유도 조직하고 사회에 산재해 있는 여론을 집합시켜 정책에 반영하여 정부와 사회의 제 세력 사이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사례>

정당교육영역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4차 교과서	7차 정치 교과서
주요 영역	세부 영역	내용		
1. 정당 정치 의 개념 과 기능	1-1. 정당 의 개념	1-1-1. 정당의 정의(보편 적, 포괄적 정의)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획득함으 로써 자식들의 정강을 실현할 것 을 목표로 하는 정치 집단이다. (고등학교 사회Ⅱ p.84)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강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 한 단체로서,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집단이나 다 른 사회단체와 구별된다.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p.80)
	1-2. 정당 의 기능	1-2-1. 여론의 형성과 조직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여 이를 정부에 전달하며, 반대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 를 유도하거나, 이를 반대하도록 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사회Ⅱ p.85)	정당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조직하는 기능을 한다.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p.81)

② 정당의 유형과 제도

정당의 유형에는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으로 나눌 수 있다. 간부정당은 초기 몇몇 보스들만의 정당으로 수가 적었기 때문에 민주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대중정당은 자발적인 당원의 당비로 운영이 되며 당원수가 많아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지닌 이념정당을 말한다. 마지막 포괄정당은 범국민정당이라고도 하며, 요즘의 정당은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은 실용주의 선거정당, 이슈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당원보다는 지지자 중심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이러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의 제도는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로 나누어지고, 먼저 일당제는 1개의 당이 곧 정부이고, 따라서 정당이 정부를 통제하게 된다. 대중을 동원하고 통제하여 정치선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치정보와 지식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일방적이고, 언젠가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양당제는 선거에 의해 두 정당 간 주기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다양한 정책과 후보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다당제보다는 다양하지 못하고, 연합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다당제는 다원적 사회세력이 정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선택의 많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 되고, 소수 민족과 종교 등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 할 수 있지만, 연립내각의 형성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비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당 사례>

정당교육영역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4차 교과서	7차 정치 교과서
주요 영역	세부 영역	내용		
2. 정당 의 유형	2-1. 정당 의 유형	2-1-3. 포괄정당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과 제 도	2-2. 정 당 의 제 도	2-2-3. 다 당 제	복수 정당 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당 정치가 발달한 나라도 있고, 프랑스나 서독과 같이 다수 정당 정치가 발달한 나라도 있는데, 이에 있어서도 각기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고등학교 사회Ⅱ p.85)	다당제는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형태이다. 국민은 자기의 정치적 의사에 가까운 정당을 널리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소수의 의견도 보호된다.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p.88)
-------------	-------------------------------	-----------------------	--	---

### ③ 유권자간의 정당

유권자간의 정당에는 시민생활 속의 정당과 정치참가의 채널로서의 정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시민생활 속의 정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도달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정당의 침투수준도 높고, 정당의 활동네트워크가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양자의 밀착도는 정당의 조직율, 계열조직의 규모, 정당에 의한 비 정치활동의 네트워크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정치참가의 채널로서의 정당은 L. Milbrace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L. Milbrace는 정치참여의 형태를 참가에 따른 대가(시간과 에너지에 의해서 환산되는)의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서열화 하고 있다. 상위를 점하는 것은 경기자적 활동이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할 각오가 요구된다. 적극적인 참가의지가 없다면 뛰어 들기 어려운 활동영역이다. 중위를 점하는 것은 이행적 활동이고, 하위에는 방관자적 활동이 위치한다.

방관자적인 활동에는 특별한 에너지도 시간도 또한 각별한 주의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경기자적 활동에서 방관자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은 그대로 정당 활동이고, 나머지도 정당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활동이다. 경쟁적 시스템에서는 많은 시민을 조직 내로 끌어들이고, 이것을 투쟁에너지로 전환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가의욕을 자극하려고 한다. 일상풍경 속에 녹아들어가 드러나지 않는 자극을 주는 것에서부터 정당 활동은 출발한다.

<해당 사례>

정당교육영역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4차 교과서	7차 정치 교과서
주요 영역	세부 영역	내용		
3. 유권 자간 의 정당	3-1. 정당 과 시민	3-1-2. 정치참여의 채널로서의 정당	해당내용 없음.	국민은 정당의 당원이 되어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정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정치 천재 p.92)

④ 현대 정당의 문제점

탈 정당화 현상에는 이익집단의 증가, 불신 무관심의 문제, 정당조직의 경직화·관료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이익집단의 증가와 일반국민의 의식의 변화-불신, 무관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정당이 시민사회의 특정 집단을 위해서 국가에 요구하는 대신에 이익 집단은 그들 자신이 직접 국가-정당에 대하여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

서 요구의 표출은 점점 이익집단의 몫으로 남는다. 특히 규모가 크고 안정된 이익집단의 경우에 정당이 발전시킨 것과 비슷한 국가와 이익집단의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사회의 세속화,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인지능력 증대, 다양한 이익집단의 증가 등 산업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정당의 당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정치적 의사소통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정당의 정치적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정당조직의 경직화·관료화는 정당정치의 강점인 ‘대정당·거대이익’간의 연합형성에서 생기는 정치모순을 승리연합이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극복 할 수 있다는 점이 퇴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쟁적 민주주의에서는 유효한 자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에서조차 구제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방치한 채,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손을 댈 필요도 없는 ‘선택된 소수자’에게 봉사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정당이 기존 거대권력에 대항하여 탄생하고, 국가로부터 적대시되고 무시당했던 고난의 시대에 갖고 있던 개척자 정신, 저항정신은 퇴색하고, 오늘날에는 그 자체가 시스템을 갖춘 안전장치로 변질하고 말았다.

한국의 정당 민주화 영역에는 당내민주화, 경쟁적 정당제확립, 부정부패타파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 극복, 당내 민주화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 시기에는 여촌야도의 현상, 민주화 시기에는 지역주의 적 지지기반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권위주의 시기에도 지역감정은 존재했지만 지역이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민주화 이후 정당의 지지기반으로서 여촌야도를 대체하여 새로이 등장한 것이 지역주의였다. 지역주의 현상이 주목받는 것은 지역주의의 강도와 지속성보다는 지역주의 적 지지가 정당 간 노선상의 수렴과 정당제의 변화의 동인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현상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 정당 지도자

의 출신지역에서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지역주의의 형성으로 한국정당정치에서 정당은 그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앞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역할이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 기형적 정치체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현대 정당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당내 파벌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관계를 서로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보지 않고 비대칭적인 수직적 관계로 파악하는 문화 속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비공식 파벌일 형성되어 공식조직의 역할을 능가하는 경우가 일어난다. 더욱이 정치적 경쟁의 규칙이 불완전한 권위주의적 정치상황에서 권력이 약한 사람은 정치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나 중간 보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쟁적 정당제 확립은 정책영역에서 목표의 설정권, 당내 지배권, 당 이데올로기에 관계되는 정책과제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정당내 경쟁’을 계속적으로 반복 확산시킨다. 복수정당제에서 다른 정당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이다. 그 때문에라도 외부에 대해서는 당내가 평온하고 내부균열도 없고 응집력도 높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다. 정당 간 경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규제, 구속을 받지만, 정당 내 경쟁은 원칙적으로 내부규약과 관행으로밖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 때문에 투명성은 극히 낮아지게 된다. ‘보이지 않는 정치’에서는 정책논쟁보다 돈과 직위가 훨씬 유효하다. 동질적, 한정적인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의 경선을 통해 실시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17대 총선에서도 실질적으로 각 당의 경선이 민주적이고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은 각 당의 경선이 아직까지도 당내 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한 민주성의 확보보다는 권력획득을 위한 효율성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 부정부패타파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정치부패, 즉 사적인 이익과 지위의 획득을 위한 공직의 공식적인 직무

규정을 일탈하는 행위의 기본적 패턴은 부와 공적인 결정에 대한 영향력, 권위적 직위, 명예가 높은 지위의 상호교환이다. J. Scott는 정치부패야말로 비공식적인 정치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혹’, ‘부패’, ‘독직’, ‘수뢰’라는 단어들은 정당정치 일부처럼 되어있다. 권력의 매력에 사로잡힌 야심가는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매수, 도둑질, 사람들에게 대한 위압, 배신, 때로는 대량살인까지도 범한다. ‘부패의 근원’론자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선거과정을 불평등하게 하고, 정치인의 도덕적 파탄을 초래한다. 그것은 결국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고 만다. 실제의 경우 정당정치사의 뒷 무대는 불쾌한 정치자금설로 가득 차 있고, 풍겨 나오는 악취 때문에 많은 시민은 이미 정당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선거에 있어 부정부패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 <정당법>31조에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모호하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당내 경선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각 정당의 당헌 등에 규정되어 있어 그 구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례>

정당교육영역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4차 교과서	7차 정치 교과서
주요 영역	세부 영역	내용		
4. 현대 정당의 문제	4-1. 탈 정당 의화 현상	4-1-1. 이익집단의 증가	해당내용 없음.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욕구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이 정당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정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p.89)

점	4-2. 한국 의 정당 민주 화	4-2-1.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 극복, 당내민주 화	해당내용 없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 구조가 형성되면서, 당의 정책 결정이나 각종 선거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 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하 였다.(고등학교 정치 천재 p.96)
---	----------------------------------	--	----------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교과서 상에서 어떤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정당관련 내용 변화분석

### 1). 제4차, 제7차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내용 변화분석

제4차, 제7차 중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전체 서술 문장 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서술 문장의 비중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IV>과 같다.

<표IV>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에서 제4차에서 제7차 정당관련 서술 내용의 영역별 비중도를 보면, 제4차 교과서에서는 정당정치 개념과 기능 영역(87.5%),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12.5%),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0%)과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0%)순으로 정당 관련 서술이 나타났다. 제7차 교과서에서는 정당정치 개념과 기능 영역(50%),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7.5%),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16.4%),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2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4차와 제7차의 중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정당 영역 서술내용을 비교해볼 때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정치 개념과 기능 영역에서 제4차 87.5%에서 제7차 50%로 -37.5%,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에서 제4차 12.5%에서 제7차 7.5%로 -5%로 제7차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 내용 비중이 줄어들었다.

둘째,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과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제4차에서는 0%로 서술된 문장이 없는데 반해, 제7차에는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이 16.4%,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26%로 서술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 <표IV> 제4차, 제7차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비중 변화

정당교육영역			문장		증감(%)
주요영역	세부영역	내용	4차	7차	해당
1. 정당정치 의 개념과 기능	1-1. 개념	1-1-1. 정당의 정의	2(25%)	35(23.9%)	-1.1
		<b>소계</b>	<b>2(25%)</b>	<b>35(23.9%)</b>	<b>-1.1</b>
	1-2. 기능	1-2-1. 여론의 형성과 조직	3(37.5%)	21(14.4%)	-23.1
		1-2-2.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2(1.4%)	+1.4
		1-2-3. 정부와 의회정치		4(2.7%)	+2.7
		1-2-4. 정치 충원의 기능	2(25%)	11(7.5%)	-17.5
	<b>소계</b>	<b>5(62.5%)</b>	<b>38(26.0%)</b>	<b>-36.5</b>	
<b>소계</b>	<b>7(87.5%)</b>	<b>73(50.0%)</b>	<b>-37.5</b>		
2. 정당의 유형과 제도	2-1. 유형	2-1-1. 간부정당			
		2-2-2. 대중정당			
		2-2-3. 포괄정당			
		<b>소계</b>			
	2-2. 제도	2-2-1. 일당제도			
		2-2-2. 양당제도			
		2-2-3. 다당제	1(12.5%)	11(7.5%)	-5
<b>소계</b>	<b>1(12.5%)</b>	<b>11(7.5%)</b>	<b>-5</b>		
<b>소계</b>	<b>1(12.5%)</b>	<b>11(7.5%)</b>	<b>-5</b>		
3. 유권자간 의 정당	3-1. 정당과 시민	3-1-1. 정보획득, 시민생활속의 정당		5(3.4%)	+3.4
		3-1-2. 정치참여의 채널로서의 정당		19(13.0%)	+13
	<b>소계</b>		<b>24(16.4%)</b>	<b>+16.4</b>	
4. 현대정당 의 문제점	4-1. 탈 정당화 현상	4-1-1. 이익집단의 증가		4(2.7%)	+2.7
		4-1-2. 불신, 무관심의 문제		17(11.6%)	+11.6
		4-1-3. 정당조직의 경직화·관료화			
		<b>소계</b>		<b>21(14.4%)</b>	<b>+14.4</b>
	4-2. 한국의 정당 민주화	4-2-1.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 극복, 당내민주화		10(6.8%)	+6.8
		4-2-2. 경쟁적 정당제확립			
		4-2-3. 부정부패타파		7(4.8%)	+4.8
<b>소계</b>		<b>17(11.6%)</b>	<b>+11.6</b>		
<b>소계</b>		<b>38(26.0%)</b>	<b>+26.0</b>		
<b>총 문장수</b>			<b>8</b>	<b>146</b>	

※.(.)안은 서술비중, +는 증가, -는 감소를 의미함. 제4차 교과서가 기준임.  
이를 토대로 세부영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 1.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의 서술비중은 제4차 87.5%에서 제7차 50%로 37.5% 감소하였으나, 세부 영역 중에서 정당의 개념 영역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정당의 기능 영역에서 제7차 교과서의 서술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서술내용면으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차이점은 발견 할 수 없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정당의 개념

정당의 개념 영역은 제4차와 제7차 교과서의 서술비중은 25%(4차)와 23.9%(7차)로 1.1%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었고, 서술내용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당의 개념관련 대표적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차 중학교 사회3(상) p.35-정당은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한 정치 단체이다.
- 제7차 중학교 사회3(교학사; 차경수 외) p.21-정당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정치 단체이다.

### 1-2. 정당의 기능

정당의 기능 영역은 전체적으로는 제4차 62.5%, 제7차 26%로 서술비중이 36.5% 감소하였다. 먼저, 여론의 형성과 영역부분부터 살펴보면 제4차 37.5%에서 제7차 14.4%로 23.1% 감소하였고,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와 정부와 의회정치 영역은 제4차 교과서에서는 서술이 되지 않았다. 제7차 교과서에서는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영역 1.4%, 정부와 의회정치 영역 2.7%의 순으로 서술이 되었다. 마지막 정치 충원의 기능 영역에서는 제4차 25%, 제7차 7.5%로 17.5% 감소하였다.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제4차 교과서에서는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정부와 의회정치 영역의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반해 제7차 교과서에서는 정당의 기능 영역의 모든 영역별로 서술이 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조직, 정치 충원의 기능 영역의 서술내용은 제4차와 제7차 교과서간의 큰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 2. 정당의 유형과 제도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제4차 12.5%, 제7차 7.5%로 5% 감소하였고, 세부영역으로 서술비중을 살펴보면 정당의 유형 영역은 제4차와 제7차 모두 서술이 되어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당의 제도 영역 또한 제4차와 제7차 모두 다당제에 대한 서술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일당제도와 양당제도 영역은 서술이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당제에 대한 서술비중이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전체 서술비중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서술내용은 제4차와 제7차 교과서가 거의 비슷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다당제에 대한 서술을 한 것이 아니라, 복수 정당제를 서

술하고 있는 것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서술내용 또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표적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차 중학교 사회3(상) p.36-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민주 국가에서는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 제7차 중학교 사회3(중양) p.23-우리나라 헌법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 3. 유권자간의 정당

#### 3-1. 정당과 시민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은 제4차 교과서에서는 서술내용이 없었고, 제7차 교과서에서만 서술이 되어졌다. 먼저 정보획득을 위한 정당 영역은 3.4%, 정치참여의 채널로서의 정당 영역은 13%로 전체적인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부분의 서술비중은 16.4%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 제4차 교과서의 서술이 되어있지 않은 점이 전체 제4차, 제7차 중학교 교과서 분석 중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4. 현대정당의 문제점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과 마찬가지로 제4차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제7차 교과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7차 교과서에서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부분이 새롭게 서술되고

있으므로 제4차 교과서에 비해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술내용면으로도 객관적인 정당의 문제점보다는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부분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세부영역별 서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4-1. 탈 정당화 현상

제4차 교과서에서는 서술되어있지 않으므로 제7차 교과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14.4%로 나타났고, 이익집단의 증가 영역은 2.7%, 불신, 무관심의 문제 영역은 11.6%, 정당조직의 경직화, 관료화 영역은 서술되어있지 않아 4-1-2.의 불신, 무관심의 문제 영역의 서술비중이 높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차 중학교 사회3(금성) p.31, 이익집단의 증가-최근,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각 정당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4-2. 한국의 정당 민주화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26%로 탈 정당화 영역보다 많이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 극복, 당내민주화 영역은 6.8%, 경쟁적 정당제확립 영역은 서술이 되어있지 않았고, 부정부패타파 영역이 1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차 중학교 사회3(교학사 차경수 외) p.34, 지역당과 일

인 계보정치 극복-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문제점으로 인물 중심의 정당 구조와 정당의 지역주의 적 성격,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나 국회 내의 다툼 등을 지적하고 있다.

## 2). 제4차, 제7차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내용 변화분석

제4차, 제7차 고등학교 사회, 정치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전체 서술 문장 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서술 문장의 비중도(%) 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V>과 같다.

<표 V>에서 볼 수 있듯이 제4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제7차 정치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 내용의 영역별 비중도를 보면, 제4차 교과서에서는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의 서술(62.5%),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서술(18.7%),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0%)과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18.7%)순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과서에서는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36.2%),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32.9%),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2.7%),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2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4차와 제7차의 고등학교 사회, 정치 교과서의 정당영역 서술내용을 비교해볼 때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에서 제4차 62.5%에서 제7차 36.2%로 26.3% 서술비중이 줄어든 반면,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에서는 제4차 18.7%에서 제7차 32.9%로 14.2%,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제4차 18.7%, 제7차 28.2%로 9.5% 서술비중이 증가하였다.

둘째,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은 제4차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서술된 문장이 없는데 반해, 제7차에는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이 2.7%로 서술내용이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비중은 매우 작았고 4영역이 고르게 서술되어 있는 제7차 교과서에 비해 제4차 교과서에서 현대정당의 문제점에 대한 서술은 불신·무관심의 영역만 나타나고 있었다.

**<표 V> 제4차, 제7차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비중 변화**

정당교육영역			문장		증감(%)
주요영역	세부영역	내용	4차	7차	해당
1. 정당정치 의 개념과 기능	1-1. 개념	1-1-1. 정당의 정의	5(31.2%)	23(15.4%)	-15.8
		<b>소계</b>	<b>5(31.2%)</b>	<b>23(15.4%)</b>	<b>-15.8</b>
	1-2. 기능	1-2-1. 여론의 형성과 조직	3(18.7%)	13(8.7%)	-10.0
		1-2-2.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6(4.0%)	+4.0
		1-2-3. 정부와 의회정치	1(6.2%)	7(4.7%)	-1.5
		1-2-4. 정치 충원의 기능	1(6.2%)	5(3.4%)	-1.8
<b>소계</b>	<b>5(31.2%)</b>	<b>31(20.8%)</b>	<b>-10.4</b>		
<b>소계</b>			<b>10(62.5%)</b>	<b>54(36.2%)</b>	<b>-26.3</b>
2. 정당의 유형과 제도	2-1. 유형	2-1-1. 간부정당			
		2-2-2. 대중정당			
		2-2-3. 포괄정당			
		<b>소계</b>			
	2-2. 제도	2-2-1. 일당제도		7(4.7%)	+4.7
		2-2-2. 양당제도	1(6.2%)	17(11.4%)	+5.2
		2-2-3. 다당제	2(12.5%)	25(16.8%)	+4.3
<b>소계</b>	<b>3(18.7%)</b>	<b>49(32.9%)</b>	<b>+14.2</b>		
<b>소계</b>			<b>3(18.7%)</b>	<b>49(32.9%)</b>	<b>+14.2</b>
3. 유권자간 의 정당	3-1. 정당과 시민	3-1-1. 정보획득, 시민생활속의 정당			
		3-1-2. 정치참여의 채널로서의 정당		4(2.7%)	+2.7
	<b>소계</b>		<b>4(2.7%)</b>	<b>+2.7</b>	
4. 현대정당 의 문제점	4-1. 탈 정당화 현상	4-1-1. 이익집단의 증가		1(0.7%)	+0.7
		4-1-2. 불신, 무관심의 문제	3(18.7%)	2(1.3%)	-17.4
		4-1-3. 정당조직의 경직화·관료화		7(4.7%)	+4.7
		<b>소계</b>	<b>3(18.7%)</b>	<b>10(6.7%)</b>	<b>-12.0</b>
	4-2. 한국의 정당 민주화	4-2-1.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 극복, 당내민주화		24(16.1%)	+16.1
		4-2-2. 경쟁적 정당제확립		3(2.0%)	+2.0
		4-2-3. 부정부패타파		5(3.4%)	+3.4
		<b>소계</b>		<b>32(21.5%)</b>	<b>+21.5</b>
<b>소계</b>			<b>3(18.7%)</b>	<b>42(28.2%)</b>	<b>+9.5</b>
<b>총 문장수</b>			<b>16</b>	<b>149</b>	

※()안은 서술비중, +는 증가, -는 감소를 의미함. 제4차 교과서가 기준임.

이를 토대로 세부영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의 서술비중은 제4차 62.5%에서 제7차 36.2%로 26.3% 감소하였고, 세부 영역 중에서 정당의 개념 영역이 정당의 기능 영역보다 서술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서술내용면으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차이점은 발견 할 수 없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정당의 개념

정당의 개념 영역의 제4차와 제7차 교과서의 서술비중은 31.2%에서 15.4%로 15.8% 감소하였으나, 서술내용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당의 개념관련 대표적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차 고등학교 사회Ⅱ p.84-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식들의 정당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 집단이다.
- 제7차 고등학교 정치(지학사) p.80-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서,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집단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구별된다.

### 1-2. 정당의 기능

정당의 기능 영역은 전체적으로 제4차 31.2%에서 제7차 20.8%로 10.4% 서술비중이 줄어들었고, 제4차 교과서에서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영역의 서술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영역을 제외한 다른 세 영역에서 제7차 교과서의 서술비중이 제4차

교과서에 비해 줄어들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술비중을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여론의 형성과 조직 영역은 18.7%(4차)에서 8.7%(7차)로 10% 줄어들었고,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영역은 제7차 교과서에서만 4% 정도 서술되어있었고, 제4차 교과서에서는 서술되어있지 않았다. 정부와 의회정치 영역은 6.2%(4차)에서 4.7%(7차)로 1.5% 줄어들었고, 정치 충원의 기능 영역은 6.2%(4차)에서 3.4%(7차)로 1.8%로 서술비중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술내용상의 변화 또한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영역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정당의 유형과 제도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18.7%(4차)에서 32.9%(7차)로 14.2% 증가하였고, 세부영역으로 서술비중을 살펴보면 정당의 유형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4차와 제7차 모두 서술이 되어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당의 제도 영역은 제7차 교과서에서는 영역별로 고르게 서술되어 있는 것에 반해, 제4차 교과서에서는 일당제에 대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제7차 교과서가 제4차 교과서에 비해 서술비중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서술내용면을 살펴보면 서술비중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제4차와 제7차 교과서가 거의 비슷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1. 정당의 유형 영역은 제4차와 제7차 교과서 모두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2-2. 정당의 제도 영역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 2-2. 정당의 제도

정당의 제도 영역의 전체 서술비중은 정당의 유형 영역이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전체 서술비중과 같다. 먼저 일당제도 영역은 제4차 교과서에서는 서술이 되어있지 않았고, 제7차 교과서에서만 4.7%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양당제도 영역은 6.2%(4차)에서 11.4%(7차)로 5.2% 증가했고, 다당제 영역은 12.5%(4차)에서 16.8%(7차)로 4.3% 증가했다. 제7차 교과서가 제4차 교과서에 비해 서술비중이 증가하고 서술내용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는 아니었다. 양당제도와 다당제 영역에서는 서술내용상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3. 유권자간의 정당

#### 3-1. 정당과 시민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은 제4차 교과서에서는 서술내용이 없었고, 제7차 교과서에서만 서술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그 비중이 너무 작았고 법문사와 천재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만 한, 두 문장 정도로 서술이 되어있었다. 먼저 정보획득을 위한 정당 영역은 제4차와 제7차 교과서 모두 서술이 되어있지 않았고, 정치참여의 채널로서의 정당 영역에서만 제7차 교과서에서 2.7%로 서술비중이 나타났다. 제4차 교과서가 이 영역에서의 서술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제4차, 제7차 중학교 교과서 분석 중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서 비중이 작게 나타난 것 또한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고, 자세한 언급은 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7차 고등학교 정치(천재) p.92-국민은 정당의 당원이 되어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정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 4. 현대정당의 문제점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제4차 교과서에서는 4-1-2의 불신, 무관심의 문제 영역에서만 서술되어있고, 제7차 교과서에서만 영역별로 고르게 서술되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7차 교과서에서는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부분이 소단원으로 단원이 나누어져 서술되고 있으므로 제4차 교과서에 비해 정당관련 서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만의 정당의 문제점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정당자체의 문제점 중심으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어 정당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있었다. 세부영역별 서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4-1. 탈 정당화 현상

제4차 교과서에서는 불신, 무관심의 문제 영역에서만 서술이 되어있었고, 제7차 교과서에서는 세부영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서술되어있었다.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18.7%(4차)에서 6.7%로 12%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7차 교과서에서는 각 영역별로 서술이 되어있었지만 그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이익집단의 증가 영역은 0.7%(7차), 불신, 무관심의 문제 영역은 18.7%(4차)에서 1.3%(7차)로 17.4% 줄어들었고, 정당조직의 경직화, 관료화 영역은

4.7%(7차)로 세부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4-1-2영역의 서술은 제4차 교과서가 더 자세히 서술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차 고등학교 사회Ⅱ p.87-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가 복잡한 시대에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여론의 형성이 어려워지고 국민이 무관심해지기 쉽다.
- 제7차 고등학교 정치(법문사) p.89-정치적 무관심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당 조직이 쇠퇴하고 정치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다.

#### 4-2. 한국의 정당 민주화

한국의 정당 민주화 영역은 제4차 교과서에서는 서술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제7차 교과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21.5%로 탈 정당화 현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세부영역별로는 먼저 지역당과 일인계보정치 극복, 당내민주화 영역은 16.1%, 경쟁적 정당제확립 영역은 2%, 부정부패타파 영역이 3.4%로 서술되었다. 서술내용은 객관적인 정당의 문제점과 함께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도 기술되어있어 학생들에게 보다 객관성 있는 지식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대표적인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차 고등학교 정치(천재) p.96, 이익집단의 증가 영역-한 사람의 지도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 구조가 형성되면서, 당의 정책 결정이나 각종 선거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

되지 못하였다.

- 제7차 고등학교 정치(지학사) p.85, 경쟁적 정당제확립 영역  
-정당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권 획득만을 목표로 상대 정  
당에 대한 비판만을 일삼는다면, 그러한 정당은 국민들의 지  
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 제7차 고등학교 정치(지학사) p.84, 부정부패타파 영역-정  
당이 부족한 재정 문제를 소수로부터 받는 후원금에 의존하  
려 할 경우 부정부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3). 제7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내용 변화분석

제7차 중·고등학교 사회, 정치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전체 서술 문장 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서술 문장의 비중도(%) 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VI>과 같다.

<표VI>에서 볼 수 있듯이 중·고등학교 사회, 정치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 내용의 영역별 비중도를 보면, 중학교 사회3 교과서에서는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의 서술(50%),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서술(7.5%),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16.4%)과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26%)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는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36.2%),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32.9%),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2.7%),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2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4차와 제7차의 고등학교 사회, 정치 교과서의 정당영역 서술내용을 비교해볼 때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에서 중학교 50%에서 고등학교 36.2%로 13.8% 서술비중이 줄어든 반면,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에서는 중학교 7.5%에서 고등학교 32.9%로 25.4%,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중학교 26%, 고등학교 28.2%로 2.2% 서술비중이 증가했다.

둘째,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이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비중이 가장 낮게 차지하고 있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에서 정당의 유형 부분은 제4차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제7차 교과서 모두 서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셋째, 중학교 교과서는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의 서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고등학교 교과서는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의 서술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VI> 제7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비중 변화**

정당교육영역			문장		증감(%)
주요영역	세부영역	내용	중학교	고등학교	해당
1. 정당정치 의 개념과 기능	1-1. 개념	1-1-1. 정당의 정의	35(23.9%)	23(15.4%)	-8.5
		<b>소계</b>	<b>35(23.9%)</b>	<b>23(15.4%)</b>	<b>-8.5</b>
	1-2. 기능	1-2-1. 여론의 형성과 조직	21(14.4%)	13(8.7%)	-5.7
		1-2-2.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2(1.4%)	6(4.0%)	+2.6
		1-2-3. 정부와 의회정치	4(2.7%)	7(4.7%)	+2
		1-2-4. 정치 충원의 기능	11(7.5%)	5(3.4%)	-4.1
	<b>소계</b>	<b>38(26.0%)</b>	<b>31(20.8%)</b>	<b>-5.2</b>	
<b>소계</b>	<b>73(50.0%)</b>	<b>54(36.2%)</b>	<b>-13.8</b>		
2. 정당의 유형과 제도	2-1. 유형	2-1-1. 간부정당			
		2-2-2. 대중정당			
		2-2-3. 포괄정당			
		<b>소계</b>			
	2-2. 제도	2-2-1. 일당제도		7(4.7%)	+4.7
		2-2-2. 양당제도		17(11.4%)	+11.4
		2-2-3. 다당제	11(7.5%)	25(16.8%)	+9.3
<b>소계</b>	<b>11(7.5%)</b>	<b>49(32.9%)</b>	<b>+25.4</b>		
<b>소계</b>	<b>11(7.5%)</b>	<b>49(32.9%)</b>	<b>+25.4</b>		
3. 유권자간 의 정당	3-1. 정당과 시민	3-1-1. 정보획득, 시민생활속의 정당	5(3.4%)		-3.4
		3-1-2. 정치참여의 채널로서의 정당	19(13.0%)	4(2.7%)	-10.3
	<b>소계</b>	<b>24(16.4%)</b>	<b>4(2.7%)</b>	<b>-13.7</b>	
4. 현대정당 의 문제점	4-1. 탈 정당화 현상	4-1-1. 이익집단의 증가	4(2.7%)	1(0.7%)	-2
		4-1-2. 불신, 무관심의 문제	17(11.6%)	2(1.3%)	-10.3
		4-1-3. 정당조직의 경직화·관료화		7(4.7%)	+4.7
		<b>소계</b>	<b>21(14.4%)</b>	<b>10(6.7%)</b>	<b>-7.7</b>
	4-2. 한국의 정당 민주화	4-2-1.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 극복, 당내민주화	10(6.8%)	24(16.1%)	+9.3
		4-2-2. 경쟁적 정당제확립		3(2.0%)	+2.0
		4-2-3. 부정부패타파	7(4.8%)	5(3.4%)	-1.4
		<b>소계</b>	<b>17(11.6%)</b>	<b>32(21.5%)</b>	<b>+9.9</b>
<b>소계</b>	<b>38(26.0%)</b>	<b>42(28.2%)</b>	<b>+2.2</b>		
<b>총 문장수</b>			<b>146</b>	<b>149</b>	

※()안은 서술비중, +는 증가, -는 감소를 의미함. 중학교 교과서가 기준임.

이를 토대로 세부영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의 전체 서술비중은 중학교 50%에서 고등학교 36.2%로 13.8% 감소하였다. 세부 영역 중에서는 정당의 개념 영역이 23.9%(중학교)에서 15.4%(고등학교)로 8.5% 서술비중이 감소하였고, 정당의 기능 영역 또한 26%(중학교)에서 20.8%(고등학교)로 5.2% 서술비중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의 전체적인 서술비중 뿐만 아니라 세부영역에서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서술비중이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서술내용면으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차이점은 발견 할 수 없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정당의 개념

정당의 개념 영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비중은 23.9%에서 15.4%로 8.5% 감소하였으나, 서술내용은 오히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당의 개념관련 대표적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사회3(교학사; 차경수 외) p.21-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정치 단체이다.
- 고등학교 정치(지학사) p.80-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강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서,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

집단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구별된다.

## 1-2. 정당의 기능

정당의 기능 영역은 전체적으로 중학교 26%에서 제7차 20.8%로 5.2% 서술비중이 줄어들었고, 두 교과서 모두 여론의 형성과 조직 영역의 서술비중이 가장 높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술비중을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여론의 형성과 조직 영역은 14.4%(중학교)에서 8.7%(7차)로 5.7% 줄어들었고,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영역은 1.4%(중학교)에서 4%(고등학교)로 2.6% 서술비중이 증가했다. 정부와 의회정치 영역은 2.7%(중학교)에서 4.7%(고등학교)로 2% 증가했고, 정치 충원의 기능 영역은 7.5%(중학교)에서 3.4%(7차)로 4.1%로 서술비중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술내용상의 변화는 여론의 형성과 조직 영역의 서술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비해 중학교 교과서가 더 자세히 되어 있었고, 다른 영역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 2. 정당의 유형과 제도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7.5%(중학교)에서 32.9%(7차)로 25.4%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비중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이다. 세부영역으로 서술비중을 살펴보면 정당의 유형 영역은 제4차 교과서 분석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서술이 되어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당의 제도 영역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영역별로 고르게 서술되어 있는 것에 반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다당제에 대한 서술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술내용 또한 고

등학교 교과서는 세부영역별로 자세한 서술이 되어진 반면, 중학교 교과서는 복수 정당제에 대한 서술만 되어있을 뿐, 자세한 개념은 서술되어있지 않았다.

2-1. 정당의 유형 영역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2-2. 정당의 제도 영역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 2-2. 정당의 제도

정당의 제도 영역의 전체 서술비중은 정당의 유형 영역이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전체 서술비중과 같다. 먼저 일당제도 영역과 양당제도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서술이 되어있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4.7%(일당제), 11.4%(양당제)로 나타났다. 다당제 영역은 7.5%(중학교)에서 16.8%(고등학교)로 9.3% 증가했다. 정당의 제도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서술비중이 증가했고, 서술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대표적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사회3(중앙) p.23-우리나라 헌법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 고등학교 정치(법문사) p.88-다당제는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형태이다. 국민은 자기의 정치적 의사에 가까운 정당을 널리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소수의 의견도 보호된다.

### 3. 유권자간의 정당

#### 3-1. 정당과 시민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은 정당의 제도 영역과 반대로 중학교 교과서에서 서술이 더 자세히 되어있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서술이 되어있긴 했지만 그 비중이 너무 작았고 법문사와 천재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만 한, 두 문장 정도로 서술이 되어있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보획득을 위한 정당 영역은 3.4%로 중학교 교과서에서만 서술내용이 있었고, 정치참여의 채널로서의 정당 영역은 13%(중학교)에서 2.7%(고등학교)로 10.3% 서술비중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 중 정당과 시민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큰 특징으로 여겨지는바 이러한 교과서 분석결과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사회3(고려) p.27, 정보획득을 위한 정당 영역-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을 정치에 반영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민주적인 정당은, 정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직이다.

### 4. 현대정당의 문제점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서가 영역별로 고르게 서술되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26%(중학교)에서 28.2%(고등학교)로 2.2%만 증가했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는 탈 정당화 현상 영역의 서술비중이 높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정당 민주화 영역의 서술비중이 높

게 나타났다.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교과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세부영역별로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의 보다 객관적 서술을 취하고 있었다. 세부영역별 서술은 다음과 같다.

#### 4-1. 탈 정당화 현상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정당조직의 경직화·관료화 영역의 서술은 되어있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세부영역별로 고르게 서술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14.4%(중학교)에서 6.7%로 7.7%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각 영역별로 서술이 되어있었지만 그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이익집단의 증가 영역은 2.7%(중학교)에서 0.7%(고등학교)로 2% 줄었고, 불신, 무관심의 문제 영역은 11.6%(중학교)에서 1.3%(고등학교)로 10.3% 서술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정당조직의 경직화, 관료화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서술되어있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4.7%로 세부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서술비중간의 차이와는 달리 중·고등학교 모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서술되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사회3(금성) p.31, 이익집단의 증가 영역-최근, 정 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각 정 당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을 통 한 정치 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정치(법문사) p.89, 이익집단의 증가 영역-다원화 된 현대 사회의 욕구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으로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이 정당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정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 4-2. 한국의 정당 민주화

한국의 정당 민주화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경쟁적 정당제 확립 영역의 서술은 되어있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세부영역별로 고르게 서술되어 있었다.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11.6%(중학교)에서 21.5%(고등학교)로 9.9% 증가 했고, 세부영역별로는 먼저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 극복, 당내민주화 영역은 6.8%(중학교)에서 16.1%(고등학교)로 9.3% 증가했다. 경쟁적 정당제확립 영역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2% 서술되어있었고, 부정부패타파 영역은 4.8%(중학교)에서 3.4%(고등학교)로 1.4% 서술비중이 줄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 극복, 당내민주화 영역의 서술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내용은 4-2-1영역에 대해 고등학교 교과서가 더 자세히 서술되어있는 반면, 4-2-3영역은 중학교 교과서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었다. 이는 서술비중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4차 교과서는 1, 2영역인 정당의 개념과 정당의 제도에 대한 서술만 되어있었는데, 이는 탈 맥락적인 개념으로 정당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을 다룬 점이 4차 교과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사회모습을 반영하지 않고 이론적 개념만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어 정당에 대한 개념과 실제 사회에서 보여 지는 정당의 모습을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정당을 실제 생활 속의 정당이 아닌 자신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정당의 개념정도로만 학습할 수 있었을 뿐, 학생들에게 실제사회와의 괴리감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는 문제점과 교과서가 비판적으로 사회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7차 교과서는 1영역부터 4영역까지의 서술이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4차 교과서보다는 실제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비중이 늘었다. 또한 삽화나 탐구활동 등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정당에 대해 생각할 자료가 풍부했다. 하지만 4차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2영역(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서술이 되어있지 않았다. 이는 각 영역별 서술비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당의 유형과 제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실제 현대 정당의 모습에 대해 특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의 서술비중이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은 향후 2~3년 후면 참정권을 갖게 되는 학생들에게 정당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이는 시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당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의 문

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과 교육내용이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정당관련 서술의 체계적인 교과서의 구성이 암묵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 1. 분석결과의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차와 제7차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간의 정당 관련 서술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와 제7차 중학교 교과서에서 정당 관련 서술내용을 분석표에 맞추어 각 영역별로 조사하고 그 비율을 비교분석 해보았다. 그 결과 제4차 교과서는 전체 정당관련 문장 수 중 1영역인 정당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서술비율이 87.5%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제7차 교과서는 50%로 제4차 교과서에 비해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영역 또한 제4차 교과서는 12.5%, 제7차 교과서는 7.5%로 제4차 교과서에 비해 서술비중이 감소하였는데, 1영역과 2영역 모두 제7차 교과서의 서술비중이 줄어든 점은 제4차 교과서에 비해 모든 영역의 서술이 고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영역과 4영역인 유권자간의 정당과 현대정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4차 교과서에서는 서술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 두 영역은 제7차 교과서에서만 서술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의 시대변화에 따라 교과서 또한 변화된 사회모습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제4차와 제7차 고등학교 교과서 또한 중학교 교과서와 같이 정당 관련 서술내용을 분석표에 맞추어 각 영역별로 조사하고 그 비율을 비교분석 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제4차 교과서는 전체 정당관련 문장 수 중 1영역인 정당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서술비율이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제7차 교과서는 36.2%로 제4차 교과서에 비해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영역은 제4차

교과서는 18.7%, 제7차 교과서는 32.9%로 제4차 교과서에 비해 서술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제7차 교과서가 정당의 제도영역의 서술이 보다 자세하고 고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영역인 유권자간의 정당역역은 제4차와 제7차 교과서 모두 서술이 거의 안 되어 있었고, 4영역인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제4차 18.7%, 제7차 28.2%로 제7차 정치 교과서가 서술비중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4차 교과서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대정당의 문제점만이 서술되어 있었으나, 제7차 교과서는 한국에서 나타난 정당의 문제점 또한 서술되어 객관적인 현대정당의 문제점과 함께 고르게 서술된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셋째, 제7차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정당 관련 서술내용을 분석표에 맞추어 각 영역별로 조사하고 그 비율을 비교분석 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 교과서는 전체 정당관련 문장 수 중 1영역인 정당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서술비율이 5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36.2%로 중학교에 비해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영역인 정당의 유형과 제도영역에서는 중학교 7.5%, 고등학교 32.9%로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비중이 크게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정당의 개념, 기능, 제도의 영역이 비교적 고르게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제4차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유형영역이 서술되어있지 않아 이는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정당의 유형에 대한 서술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점은 현대정당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정당의 모습

---

4) 제7차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간의 정당관련 서술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제4차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간의 서술내용은 큰 차이도 없었고,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이 중요한 것이고 그 중심에 정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 시기 이전의 교과서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져 제외하였다.

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점에 개선이 필요하다. 3영역인 유권자간의 정당영역에서는 중학교 16.4%, 고등학교 2.7%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제7차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출판사별로 고르게 서술되어 있었지만 고등학교 4종의 교과서에서는 유권자간의 정당영역의 서술이 한 종의 교과서에서만 있을 뿐, 거의 서술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당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를 학생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 4영역인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중학교 26%, 고등학교 28.2%로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세부영역을 비교해보면 객관적인 정당의 문제점에 대한 영역인 탈 정당화 현상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가 7.7%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정당 민주화 영역은 고등학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2.2%서술비중이 높았지만, 비중차이가 크지 않아 고등학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보다 심화 발전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사회과 교육의 핵심 영역 중의 하나인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이다. 그 안에서 정당의 역할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정치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관련 서술내용은 제4차 교과서에 비해서는 제7차 교과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정당의 유형영역의 서술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유권자간의 정당영역이 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부족한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올바르게 정당에 대해 학습하고, 한국 정당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체계적인 교과서 개선이 요구된다.

## 2. 시사점 및 제언

민주화 이전의 한국의 정당은 지역과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 중심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정당으로 시대 분위기뿐만 아니라 정당의 모습 또한 권위주의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주요 정당 내외부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세대 그리고 계층과 이해관계를 정책으로 보다 넓게 포괄하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처럼 사회와 정당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데 교과서 또한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서술내용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화 시기 이전과 이후의 교과서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었고, 정당에 대한 서술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년별로 체계적인 내용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주주의 시대에서 정당의 중요성이 교과서에 제대로 서술되지 못하고 있었고, 한국 정당의 모습에 대해 판단할 잣대가 부족해 학생들이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정당에 대해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변화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정당이론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교과서 재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과 교과서에서 정당관련 연구가 본 연구를 시작으로 교과서에서의 정당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 교과서에서 정당관련 서술내용에 대해 제언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당의 유형에 대한 서술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학교 3학년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정치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학년이다. 따라서 정당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골고루 학습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대 정당의 유형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잣대가 없게 된다. 분석결과 제4차 교과서는 물론 제7차 교과서 역시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정당의 유형에 대한 서술은 되어있지 않았다. 정당의 유형은 탈 맥락적인 개념으로 사회와 정당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서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교과서구성에 필수적으로 일정부문을 할애한다면 보다 교과서가 알차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넣어주어 학생들에게 정당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보다 심화되어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서보다 유권자간의 정당영역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정치’교과서는 선택과목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정당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중3까지이다. 따라서 중학교 교과서는 모든 영역의 서술이 고르게 되어있어야 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를 심화시킨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분석해보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 지나, 고등학교 교과서는 관련 서술내용이 오히려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의 서술이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많이 부실한 점은 향후 2~3년 후면 참정권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의도하는 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 속의 정당의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

서에서 유권자 간의 정당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화되어 추가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서보다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에서 한국의 정당민주화 부분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현대 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보다 비중 있게 실리고 있어 기초지식은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심화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정치과목은 반복학습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기초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에게 보다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을 전달해 줘야 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고등학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어있어 선택과목으로서의 정치과목이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4차 교과서의 구성의 원인은 제4차 교육 과정 기는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22호로 확정되어 1988년 3월 개정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이념이나 교육과정사조 또는 이론상 어느 한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제4차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인간상을 그리면서 전인 교육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교육 실체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70년대의 유신체제하의 사회경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한층 더 국민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수행되었던 정부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는 30년간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부독재 하에서 반공과 근대화란 울타리 속에서 정당다운 정당도 없었고, 민주정치다운 형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제4차 교과서가 민주정당의 기본 개념만을 다루고 실제 사회현상을 서술되지 못

한 점은 학생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한국 정당에 대해 학습 할 수 없었던 환경에 있었기 때문임을 짐작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4차와 제7차 교과서간의 정당관련 서술내용이 비중의 차이만 발견되고 관점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민주화 시대로 발전되어 가면서 정당정치的重要性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과서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의 정당정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실제 사회의 변화를 교과서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로 양적인 차이가 아닌 질적인 차이로 수준 높은 교과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청소년들은 정당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관심한 경향이 높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정당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도 없이 무조건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잘못된 지식과 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정치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해 정당의 개념과 실제 현대 정당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정당관련 서술내용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장차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어 주고, 보다 심화된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탐구활동, 삽화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학교현장의 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더 이상 나와는 거리가 있는 소수의 몇몇만을 위

한 기구가 아니며, 정당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시기에 정당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훗날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보다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휘원 외(2000). 『현대 정치의 이해』. 서울: 역락.
- 교육부(1997).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7).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 권영중(2002).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연구: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 김경동 외(1989).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김세균(2004).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민교협회보 51-52호.
- 김진화(2003).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교부(1981).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1).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지은(2003). 『사회 변동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상문 외(2003). 『정당개혁 방안; 2003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입법정책연구회.
- 심지연(2003).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 심지연(2004).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서울: 백산서당.
- 안성호(2002). 『신 정치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2003). 『정치학-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오스틴 래니(Austin Ranney), 권만학 역(1998). 『현대 정치학』. 서울: 을유문화사.
- 오키자와 노리오, 이명남 역(1997). 『현대정당론』. 서울: 문원.
- 윤상철 외(2006). 『민주발전지수-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건강한가?(2004~2005 : 평가와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수구성 연구.
- 이극찬(2007). 『정치학』. 서울: 법문사.
- 이남영(2001). 『선거과정에 대한 체계적 비교연구』. 2001년도 하계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경남정치학회 공동주최.
- 이수정(2003).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 정치영역의 내용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종(2006). 『국민참여시대의 한국 정당』. 경기도: 나남출판.
- 이춘수(2002).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치 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연구』. 교육연구논총 제23권 3호.
- 이행봉(2000).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한국민족문화학회. pp.143-182.
- 이현출(1993). 『한국정당체계의 변화와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학술저널 제6집. pp.63-97.
- 조희연(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서울: 한국출판협동조합.
- 주정연(2001). 『한국의 정당정치의 과제와 정치발전모색』. 사회과학연구. pp.117-140.
- 최병모(2001).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체제적 분석』. 시민교육연구 제33집. pp.333-374.
- 최장집(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 서울: 후마니타스.

최한수(1993). 『현대 정당론』 . 서울: 을유문화사.

채기범(2004).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삽화의 양성 평등 적합성 분석』 .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 사>

기고(2007.3.14). 『‘1987년 체제’와 실질적 민주주의』 . 강내희(중앙대, 논  
술위원).

신동아(2000.3.1). 『한국의 민주화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나타난  
‘시민사회의 폭발’에 의해 가능했다』 .

울산일보(2007.2.28).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우기』 . 김병길 편집이사.

인천신문(2007.1.1). 『6월 항쟁은 직선제로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확고히  
했고, 다당제 등 국회기능을 정상화하는 등 법제화한 민주주의를 돌  
이킬 수 없게 함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낳았다』 . 송정로 기자.

중앙일보(2006.1.15). 『한국 민주화 '반보(半步)의 지혜』 . 이홍구.

## <교과서>

- 문교부(1982). 『중학교 사회3(상)』.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문교부(1985). 『고등학교 사회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주환 외(2002). 『중학교 사회3』. 서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김화목 외(2002). 『중학교 사회3』. 서울: (주)동화사.
- 오경섭 외(2002). 『중학교 사회3』. 서울: (주)도서출판 디딤돌.
- 이진석 외(2002). 『중학교 사회3』. 서울: (주)지학사.
- 조화룡 외(2002). 『중학교 사회3』. 서울: (주)금성출판사.
- 차경수 외(2002). 『중학교 사회3』. 서울: (주)교학사.
- 최현섭 외(2002). 『중학교 사회3』. 서울: (주)고려출판.
- 황재기 외(2002). 『중학교 사회3』. 서울: (주)교학사.
- 강세중 외(2002). 『고등학교 정치』. 서울: (주)천재교육.
- 김왕근 외(2002). 『고등학교 정치』. 서울: (주)법문사.
- 이승종 외(2002). 『고등학교 정치』. 서울: (주)지학사.
- 최병모 외(2002). 『고등학교 정치』. 서울: (주)대한교과서.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POLITICAL PARTIES-RELATED  
CONTENT I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 WITH AN EMPHASIS ON THE FOURTH AND SEVENTH  
CURRICULUMS-BASED TEXTBOOKS OF SOCIAL SCIENCE IN MIDDLE  
AND HIGH SCHOOL-

Kim, Hye-Lim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differences of textbooks in middle and high school before and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in terms of describing political parties. If the teenagers of this country didn't receive an adequate education as to the politics of political parties, it could be quite a big problem for its future democracy; if they think of the politics of political parties as a macroscopic form of social conflict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ir own life, they might become indifferent to the politics eventually when they grow up. It is thus very important for their school to play a certain role in terms of making them realize the importanc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democracy and helping them take part in i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ir school textbooks, among others, since they are the basic material and the most important tool for learning.

In this study, speaking in concrete terms,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political parties-related contents of the fourth and seventh curriculums-based textbooks of social science in middle and high school, which are divided into four areas: the notion and function of a political party, its type and system, the political parties amongst voters and the problems of modern political parties.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through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compared to the fourth curriculum-based textbooks, there have been some positive changes in the seventh curriculum-based ones in terms of describing political parties. While the former deals with some basic content only, the latter contains all elements of the aforesaid four area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And there has been more description as to the reality of the society in the latter. Although there isn't a conspicuous difference in terms of describing the notion and function of a political party, as well as its type and system, only the seventh curriculums-based textbooks deal with the areas concerning the political parties amongst voters and the problems of modern political parties. Types of political parties aren't described in any form and shape in either kind of textbooks.

Secondly, comparing the contents of seventh curriculum-based textbooks, those of high school don't contain as concrete material as those of middle school in terms of describing political parties. The former, despite the expectations to contain more material than the

latter, fails to deal with the area concerning the political parties amongst voters in concrete terms. As far as the problems of modern political parties are concerned, there isn't a conspicuous difference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On the contrary, those of middle school contain more material concerning the problems of modern political parties than those of high school. If the high school students merely continue studying at the same level of what they have already learned in middle school, their learning as to the politics would turn out to be only repetitive. Considering that they are going to have a right to vote within two to three years, they are supposed to learn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 with political parties.

Here are some suggestions as to the political parties-related content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Firstly, there isn't a difference of standpoint, no matter how much is described as to the matter concerning the political parties, which proves that there is no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related material. This is because the textbooks fail to deal with actual changes of the society. It is thus necessary to provide students with textbooks that contain qualitatively upgraded material rather than what is merely quantitatively improv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students with theoretical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to the type and system of political parties. The history of political parties shows that only one party gained overall supremacy or sustained dominating power in Korea and that its politics repeats the same old style of political turmoil process. And the

current textbooks of political science fail to provide students with some standards in terms of how to judge the particular situation of Korean politics; it is thus necessary to teach them as to the types of political parties, which were never dealt with previously.

Thirdly, the education should contribute to bringing up future citizens who will try to make some changes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Korea, where people tend to mistrust political parties and there isn't an active interaction between them. It is thus necessary for high school textbooks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voters and political parties and the problems of modern political parties at a more in-depth level.

## <참고부록 1> 정당관련 서술내용 변화분석

### 1. 제4차, 7차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내용 변화분석

정당교육영역			문장	
주요영역	세부영역	내용	4차	7차
1	1-1.	1-1-1.	정당은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한 정치단체이다.(중학교사회3(상) p.35)	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정치 단체이다.(교학사(차) p.21)
	1-2.	1-2-1.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 의사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며, 국민에 대하여 정치의 책임을 짐으로써, 국가 운영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중학교 사회3(상) p.36)	그래서 모든 정당들은 국민의 다양한 뜻과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정당의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 정치는 더욱 발전되어 간다.(교학(차) p.21)
		1-2-2.	해당내용 없음.	정당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중앙 p.23)
		1-2-3.	해당내용 없음.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여 국민의 뜻이 반영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동화사 p.20)
		1-2-4.	정당은 정치적 목표를 밝힌 정강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서 정책을 제시하고, 국회의원이나 기타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를 당선시킴으로써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중학교 사회 3(상) p.35)	정당은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려 한다.(동화사 p.29)
2	2-1.	2-1-1.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2.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3.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1.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	2-2-2.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민주 국가에서는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중학교 사회3(상) p.36)	우리나라 헌법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중앙 p.23)
3	3-1.	3-1-1.	해당내용 없음.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을 정치에 반영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민주적인 정당은, 정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직이다.(고려 p.27)
		3-1-2.	해당내용 없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인 활동력을 갖춘 시민은 정당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도 한다.(금성 p.32)
4	4-1.	4-1-1.	해당내용 없음.	최근,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각 정당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금성 p.31)
		4-1-2.	해당내용 없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민 스스로가 지배받는 자의 위치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정치 문제보다는 대중적인 오락에 관심을 가진다.](교학사(황) p.27)
		4-1-3.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4-2.	4-2-1.	해당내용 없음.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문제점으로 인물 중심의 정당 구조와 정당의 지역주의 적 성격,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나 국회 내의 다툼 등을

			지적하고 있다.(교학사(차) p.34)
		4-2-2.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4-2-3. 해당내용 없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위하여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거나, 권한의 남용으로 부정부패가 늘어나기도 하였다.(지학사 p.33)

## 2. 제4차, 7차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비중 변화분석

정당교육영역			문장	
주요영역	세부영역	내용	4차	7차
1	1-1.	1-1-1.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시들의 정당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 집단이다.(고등학교 사회Ⅱ p.84)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강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서,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집단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구별된다.(지학사 p.80)
	1-2.	1-2-1.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여 이를 정부에 전달하며, 반대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이를 반대하도록 하기도 한다.(고등학교 사회Ⅱ p.85)	정당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조직하는 기능을 한다.(지학사 p.81)
		1-2-2.	해당내용 없음.	정당은 당 기관지, 의정 보고회, 강연회, 집회 등을 통해 정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킨다. (지학사 p.81)
		1-2-3.	정당은 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때

			매개적 역할을 하며, 정부 내 각 부처의 활동을 상호조정해주는 기능도 수행한다.(고등학교 사회Ⅱ p.85)	개역할을 하며, 정부 각 부처의 활동을 조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지학사 p.81)
		1-2-4.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등학교 사회Ⅱ p.85)	정당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를 배출한다.(지학사 p.81)
2	2-1.	2-1-1.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2.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3.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	2-2-1.	해당내용 없음.	일당제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며, 국민들은 그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지학사 p.82)
		2-2-2.	복수 정당 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당 정치가 발달한 나라도 있고, 프랑스나 서독과 같이 다수 정당이 발달한 나라도 있는데,	양당제는 대표적인 두개의 정당이 정권을 잡기위해 경쟁하는 형태로, 정당 간의 정권 교체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지학사 p.82)
		2-2-3.	이어서도 각기 입장일단이 있으므로,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고등학교 사회Ⅱ p.85)	다당제는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형태이다. 국민은 자기의 정치적 의사에 가까운 정당을 널리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소수의 의견도 보호된다.(법문사 p.88)
3	3-1.	3-1-1.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3-1-2.	해당내용 없음.	국민은 정당의 당원이 되어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정당을 지지하기도 한다.(천재 p.92)
4	4-1.	4-1-1.	해당내용 없음.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욕구를 민감

			하게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이 정당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정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법문사 p.89)
		4-1-2.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가 복잡한 시대에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여론의 형성이 어려워지고 국민이 무관심해지기 쉽다.(고등학교 사회Ⅱ p.87)
		4-1-3.	해당내용 없음.
			당원이 증가하여 정당 내부에 관료제가 형성되면서 정당은 몇몇 사람에게 의해 주도되고 이들 간의 권력 투쟁과 권위주의적인 운영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기도 한다.(천재 p.95)
	4-2.	4-2-1.	해당내용 없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 구조가 형성되면서, 당의 정책 결정이나 각종 선거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하였다.(천재 p.96)
		4-2-2.	해당내용 없음.
			정당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권 획득만을 목표로 상대 정당에 대한 비판만을 일삼는다면, 그러한 정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지학사 p.85)
		4-2-3.	해당내용 없음.
			정당이 부족한 재정 문제를 소수로 부터 받는 후원금에 의존하려 할 경우 부정부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지학사 p.84)

### 3. 제4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내용 변화분석

정당교육영역			문장	
주요영역	세부영역	내용	중학교	고등학교
1	1-1.	1-1-1.	정당은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한 정치단체이다.(중학교사회3(상) p.35)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시들의 정당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 집단이다.(고등학교 사회II p.84)
		1-2-1.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 의사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며, 국민에대하여 정치의 책임을 짐으로써, 국가 운영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중학교 사회3(상) p.36)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여 이를 정부에 전달하며, 반대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이를 반대하도록 하기도 한다.(고등학교 사회II p.85)
	1-2.	1-2-2.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1-2-3.	해당내용 없음.	정당은 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며, 정부 내 각 부처의 활동을 상호조정해주는 기능도 수행한다.(고등학교 사회II p.85)
	1-2-4.	정당은 정치적 목표를 밝힌 정강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정책을 제시하고, 국회 의원이나 기타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를 당선시킴으로써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중학교 사회 3(상) p.35)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등학교 사회II p.85)	
2	2-1.	2-1-1.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1-2.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1-3.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	2-2-1.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2.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민주 국가에서는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중학교 사회3(상) p.36)	복수 정당 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당 정치가 발달한 나라도 있고, 프랑스나 서독과 같이 다수 정당 정치가 발달한 나라도 있는데, 이에 있어서도 각기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고등학교 사회Ⅱ p.85)
		2-2-3.		
3	3-1.	3-1-1.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3-1-2.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4	4-1.	4-1-1.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4-1-2.	해당내용 없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가 복잡한 시대에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여론의 형성이 어려워지고 국민이 무관심해지기 쉽다.(고등학교 사회Ⅱ p.87)
		4-1-3.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4-2.	4-2-1.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4-2-2.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4-2-3.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 4. 제7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내용 변화분석

정당교육영역			문장	
주요영역	세부영역	내용	중학교	고등학교
1	1-1.	1-1-1.	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정치 단체이다.(교학사(차) p.21)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강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서,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집단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구별된

				다.(지학사 p.80)
	1-2.	1-2-1.	그래서 모든 정당들은 국민의 다양한 뜻과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정당의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 정치는 더욱 발전되어 간다.(교학사(차) p.21)	정당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조직하는 기능을 한다.(지학사 p.81)
		1-2-2.	정당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중앙 p.23)	정당은 당 기관지, 의정 보고회, 강연회, 집회 등을 통해 정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킨다. (지학사 p.81)
		1-2-3.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여 국민의 뜻이 반영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동화사 p.20)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며, 정부 각 부처의 활동을 조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지학사 p.81)
		1-2-4.	정당은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려 한다.(동화사 p.29)	정당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를 배출한다.(지학사 p.81)
2	2-1.	2-1-1.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2.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3.	해당내용 없음.	해당내용 없음.
	2-2.	2-2-1.	해당내용 없음.	일당제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며, 국민들은 그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지학사 p.82)
		2-2-2.	우리나라 헌법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중앙 p.23)	양당제는 대표적인 두개의 정당이 정권을 잡기위해 경쟁하는 형태로, 정당 간의 정권 교체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지학사 p.82)
		2-2-3.		다당제는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형태이다. 국민은 자기의 정치적 의사에 가까운 정당을 널리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소수의 의견도 보호된다.(법문사 p.88)
3	3-1.	3-1-1.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을 정치에 반영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민주적인 정당은, 정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직이다.(고려 p.27)	해당내용 없음.
		3-1-2.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인 활동력을 갖춘 시민은 정당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도 한다.(금성 p.32)	국민은 정당의 당원이 되어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정당을 지지하기도 한다.(천재 p.92)
4	4-1.	4-1-1.	최근,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각 정당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금성 p.31)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욕구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이 정당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정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법문사 p.89)
		4-1-2.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민 스스로가 지배받는 자의 위치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정치 문제보다는 대중적인 오락에 관심을 가진다.](교학사(황) p.27)	정치적 무관심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당 조직이 쇠퇴하고 정치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다.(법문사 p.89)
		4-1-3.	해당내용 없음.	당원이 증가하여 정당 내부에 관료제가 형성되면서 정당은 몇몇 사람에 의해 주도되고 이들 간의 권력 투쟁과 권위주의적인 운영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기도 한다.(천재 p.95)
	4-2.	4-2-1.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 정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절대적인 영향

		<p>치의 문제점으로 인물 중심의 정당 구조와 정당의 지역주의 적 성격,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나 국회내의 다툼 등을 지적하고 있다.(교학사(차) p.34)</p>	<p>력을 행사하는 정당 구조가 형성되면 서, 당의 정책 결정이나 각종 선거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 되지 못하였다.(천재 p.96)</p>
	4-2-2.	<p>해당내용 없음.</p>	<p>정당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권 획득만을 목표로 상대 정당에 대한 비판만을 일삼는다면, 그러한 정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지학사 p.85)</p>
	4-2-3.	<p>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위하여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거나, 권한의 남용으로 부정부패가 늘어나기도 하였다.(지학사 p.33)</p>	<p>정당이 부족한 재정 문제를 소수로부터 받는 후원금에 의존하려 할 경우 부정부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지학사 p.84)</p>

## <참고부록 2> 제4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내용 변화분석

제4차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전체 서술 문장 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서술 문장의 비중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VII>과 같다.

<표VII>에서 볼 수 있듯이 제4차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정당관련 서술 내용의 영역별 비중도를 보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87.5%),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12.5%),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과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서술되어있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의 서술(62.5%),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서술(18.7%),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0%),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18.7%)순으로 나타났다.

제4차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정당영역 서술내용을 비교해볼 때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에서 중학교 87.5%에서 고등학교 62.5%로 25% 서술비중이 줄어든 반면,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에서는 중학교 12.5%, 고등학교 18.7%로 6.2%,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서술이 되어있지 않고, 고등학교 교과서가 18.7%로 서술비중이 증가하였다.

둘째,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서술된 문장이 없었고, 정당의 유형은 모든 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당관련 서술비중 변화>

정당교육영역			문장		증감(%)
주요영역	세부영역	내용	중학교	고등학교	해당
1. 정당정치 의 개념과 기능	1-1. 개념	1-1-1. 정당의 정의	2(25.0%)	5(31.2%)	+ 6.2
		소계	2(25.0%)	5(31.2%)	+ 6.2
	1-2. 기능	1-2-1. 여론의 형성과 조직	3(37.5%)	3(18.7%)	-18.8
		1-2-2.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1-2-3. 정부와 의회정치		1(6.2%)	+ 6.2
		1-2-4. 정치 충원의 기능	2(25.0%)	1(6.2%)	-18.8
	소계	5(62.5%)	5(31.2%)	-31.3	
소계	7(87.5%)	10(62.5%)	-25.0		
2. 정당의 유형과 제도	2-1. 유형	2-1-1. 간부정당			
		2-2-2. 대중정당			
		2-2-3. 포괄정당			
		소계			
	2-2. 제도	2-2-1. 일당제도			
		2-2-2. 양당제도		1(6.2%)	+ 6.2
		2-2-3. 다당제	1(12.5%)	2(12.5%)	0
소계	1(12.5%)	3(18.7%)	+ 6.2		
소계	1(12.5%)	3(18.7%)	+ 6.2		
3. 유권자간 의 정당	3-1. 정당과 시민	3-1-1. 정보획득, 시민생활속의 정당			
		3-1-2. 정치참여의 채널로서의 정당			
	소계				
4. 현대정당 의 문제점	4-1. 탈 정당화 현상	4-1-1. 이익집단의 증가			
		4-1-2. 불신, 무관심의 문제		3(18.7%)	+ 18.7
		4-1-3. 정당조직의 경직화·관료화			
		소계		3(18.7%)	+ 18.7
	4-2. 한국의 정당 민주화	4-2-1. 지역당과 일인 계보정치 극복, 당내민주화			
		4-2-2. 경쟁적 정당제확립			
		4-2-3. 부정부패타파			
소계					
소계		3(18.7%)	+ 18.7		
총 문장수			8	16	

※()안은 서술비중, +는 증가, -는 감소를 의미함. 중학교 교과서가 기준임.

이를 토대로 세부영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당정치와 개념과 기능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의 전체 서술비중은 중학교 87.5%에서 고등학교 62.5%로 25% 감소하였다. 세부 영역 중에서 정당의 개념 영역은 중학교 25%, 고등학교 31.2%로 6.2%증가한 반면, 정당의 기능 영역은 중학교 62.5%, 고등학교 31.2%로 31.3% 서술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중학교 교과서는 정당의 기능 영역의 서술비중이 높았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서술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서술내용면으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차이점은 발견 할 수 없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정당의 개념

정당의 개념 영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비중은 25%에서 31.2%로 6.2% 증가하였으나, 서술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당의 개념관련 대표적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사회3(상) p.35-정당은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한 정치 단체이다.
- 고등학교 사회Ⅱ p.84-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시들의 정강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 집단이다.

### 1-2. 정당의 기능

정당의 기능 영역은 전체적으로는 중학교 62.5%, 고등학교 31.2%로 서술 비중이 31.3% 감소하였다. 세부영역별로는 먼저, 여론의 형성과 영역부분부터 살펴보면 중학교 37.5%에서 고등학교 18.7%로 18.8% 감소하였고,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와 정부와 의회정치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서술이 되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는 정치교육과 정치사회화 영역은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서술되어있지 않았고, 정부와 의회정치 영역이 6.2% 서술이 되었다. 마지막 정치 충원의 기능 영역에서는 중학교 25%, 고등학교 6.2%로 18.8%감소하였다. 서술비중을 분석해보면 중학교 교과서는 여론의 형성과 조직 영역과 정치 충원의 기능 영역에서만 서술이 편중되어 있었던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전체적인 비중은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각 영역별로 고르게 서술되어있는 점을 특징적인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조직, 정치 충원의 기능 영역의 서술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간의 큰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 2. 정당의 유형과 제도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전체적인 서술비중은 12.5%(중학교)에서 18.7%(고등학교)로 6.2% 증가하였고, 세부영역으로 서술비중을 살펴보면 정당의 유형 영역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서술이 되어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당의 제도 영역 또한 중,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양당제, 다당제를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고, 복수 정당에 대한 서술로 되어있는 것이 제4차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비중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폭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1. 정당의 유형 영역은 중,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2-2. 정당의 제도 영역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 2-2. 정당의 제도

정당의 제도 영역의 전체 서술비중은 정당의 유형 영역이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의 전체 서술비중과 같다. 먼저 일당제도 영역은 중,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서술되어있지 않았고, 양당제도 영역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만 6.2% 서술비중이 나타났다. 다당제 영역은 중,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12.5%로 나타났다. 중, 고등학교 교과서 서술비중은 차이가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세부영역에 대하여 한 두 문장 정도로 간략히 서술되어져 있었을 뿐 자세한 개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았다. 대표적인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사회3(상) p.36-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민주 국가에서는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Ⅱ p.85-복수 정당 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당 정치가 발달한 나라도 있고, 프랑스나 서독과 같이 다수 정당 정치가 발달한 나라도 있는데, 이에 있어서도 각기 입장일단이 있으므로,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3. 유권자간의 정당

### 3-1. 정당과 시민

유권자간의 정당 영역은 제4차 중,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서술내용이 없었다.

## 4. 현대정당의 문제점

현대정당의 문제점 영역은 고등학교 교과서(18.7%)에서만 서술되어있었고,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한국의 정당민주화 영역은 서술이 되어있지 않았고, 탈 정당화 현상 영역에서 불신, 무관심의 문제에 대한 서술만 간략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4-2. 한국의 정당민주화 영역은 두 교과서 모두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4-1. 탈 정당화 현상 영역만 분석하고자 한다.

### 4-1. 탈 정당화 현상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불신, 무관심의 문제 영역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비중은 18.7%로 정당의 유형과 제도 영역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정당정치의 개념과 기능 영역에만 서술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서는 비교적 다양한 영역별로 서술이 되어있었지만 그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서술비중에 비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사회Ⅱ p.87-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가 복잡한 시대에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고도의 전문

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여론의  
형성이 어려워지고 국민이 무관심해지기 쉽다.